

알고 취하면 더 맛있는 우리술 이야기

취할 준비
박준하 지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만큼 느낀다’고 했다. 주량이 소주 세 잔인 ‘알쓰(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의미하는 ‘알뜰 쓰레기’의 준말) MZ 기자는 일로 우리술을 처음 접했다. 보름에서 ‘전통주 붉은 온다’라는 문장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일렁였던 기자는 전국 양조장을 찾아다니면서 차츰 우리술에 매료되고 결국 사랑하게 됐다. ‘전통주 소믈리에’와 ‘우리술제조관리사’(3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조주기능사’ 자격증에도 전종이다. 또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우리술을 알리는 ‘술플루언서’(술+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술 전문가인 박준하 농민신문 기자는 신간 ‘취할 준비’ 들어가며에서 “이 책은 알쓰가 술에 대해 알아가는 여행이자, 술과 사랑에 빠진 과정을 기록한 로 맨틱 코미디다. 우리술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가이드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담았다. 나 같은 알쓰도, 술을 사랑하는 술꾼도, 술독에 빠진 주당도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경험을 상기고,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밝힌다.

저자는 크게 ▲전통주? 우리술? 아무튼 처음 빚겠습니다 ▲옛날 술을 마시는 요즘 사람들 ▲나와 세상 사이에 놓인 이 한잔의 술 등 3부로 나눠 부제처럼 ‘알고 취하면 더 맛있는 우리술 이야기’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끈다.

“우리술을 취재하니 오래된 양조장을 만나게 된다.

오래된 양조장엔 오래된 술과 세월을 먹은 사람이 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떤 전통들은 살아나기도, 또 어떤 전통들은 사라지기도 한다.”

저자는 ‘알쓰’에서 ‘우리술 전문가’로 거듭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밝힌다. 또한 전통적인 우리술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진 ‘이전에 없었던’ 우리술을 소개한다. 2030세대에게 ‘술의 성지’로 떠오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전통주 양조장과 잔술 메뉴, 소주·막걸리 도수 트렌드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여준다.

신간은 기존의 ‘우리술 답사기’와 다른 결을 갖고 있다. MZ세대의 우리술에 대한 시각을 짚어 감정의 문체로 풀어낸다. 기사체로 엮은 전통주 명인이나 우리술이야기라면 이렇게 술술 읽히지 않을 것이다.

저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일년에 딱한번 새해맞은 첫 돼지날부터 세 번의 돼지날에 걸쳐 빛나는 ‘삼해주(三亥酒)’와 포르투갈 주정강와 발효주 포트와인 격인 ‘과하주(過夏酒)’ 등 생소한 우리술을 접하게 된다. 덧술을 더해 다섯 번까지 빛나는 ‘오양주’가 있고 상품화되고 있는 것도 처음 알게됐다. 글 중간중간 마련된 ‘취하기 전에 알아야 할 우리술 상식’은 우리술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주와 약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잔 우리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100년 동안대를 이어가며 우리술을 빚는 ‘목도양조장’(충북 괴산군)과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를 만드는 ‘모일 양조장’(강원도 원주시) 등 ‘맹정신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술 여행지 12’도 눈에 띈다.



(위즈덤하우스 제공)

요즘 주류시장에서 전통주는 1%정도의 점유율을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진도홍주를 찾는 폴란드 위스키마니아 사례처럼 우리술 ‘K술’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을 읽다보면 술 취함이나 주량에 관계없이 우리술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절로 애정을 품게 된다. 전국 1400개 양조장에서 빚어내는 우리술만이 궁금하다. 아마도 독자들은 주유천하(酒遊天下)가 아니라 우리술 주유천하(酒遊天下)를 하지 않을까 싶다.

〈위즈덤하우스·1만95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운 책

▲에듀테크의 시대=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는 어느덧 IT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익숙하다. 공교육 및 사교육을 막론하고 에듀테크는 4차산업혁명 시류를 타고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교육과 기술의 접목에 있어 운용 원칙, 필요한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에듀테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학습에 재미 요소와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법, 기술의 통제까지 전 영역의 에듀테크 지식을 고찰한다.

〈다산스마트에듀·2만2000원〉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물리적 근육뿐만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마음의 근육’은 어떻게 기를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다.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리두기의 지혜는 도움이 된다. 비난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상처받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과거를 들여다보는 법을 알려준다. 감정을 무조건 참아내기보다 가끔은 쏟아내야 한다는 점도 역설한다.

〈특별한서재·1만8800원〉

▲꿀벌은 인간보다 강하다=생태학적 중요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꿀벌’에 대해 이야기한다. 꿀의 공급자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 공중 등에도 벌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나아가 사회적 역할도 큰데 파라도 시절부터 교황들의 시대, 나폴레옹 1세에 이르기까지 군주사



회의 상징적 문양으로도 사용돼 왔다. 사자나 호랑이, 용과 비등하게 ‘벌’이 군주의 강대한 상징으로 사용된 이유는 벌이 인류에게 주는 소중한 때문이라 말한다.

〈위즈덤하우스·2만원〉

▲60년대생이 온다=베이비 붐머 세대로 불리던 60년대생이 온다. 오늘날 60년대생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까. 세대 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미션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고도성장기의 주역이자 외환위기,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거치며 양극화의 한 지평도를 점유하고 있는 중심 세대. 흔히 ‘부자 세대’라고 여겨지는 이들의 현실과 세대론을 살펴본다.

〈비아북·1만7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랜덤가족=나를 위한 가족 구독 서비스. 소원이의 가족은 서로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개개인주의 그 자체다. 어느 날 소원이 눈앞에 나타난 ‘랜덤 가족’은 AI가 취향을 반영해 딱 맞는 가족을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다. 반쯤 기회는 단 두 번 뿐. 세상에 ‘완벽한 가족’이란 존재할까. 더불어 상대에게 ‘나’는 완벽한 가족 구성원일까 생각해볼게 한다.

〈킨더랜드·1만3000원〉

▲초등 사교력 플러스=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인 ‘사교력’을 키워준다. 교과서 지식과 연계해 과학 ‘동물의 한 살이’, ‘동물의 생활’을 비롯해 도덕

‘나와 너 우리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 미술 ‘나만의 초충도’, 음악 지식 등을 알려준다. 단순 교과 내용을 넘어서 다양한 창의력 문제 등을 생각해볼게 한다.

〈파란자전차·1만4900원〉

▲열두 달 역사 체험=사회 교과서를 집필한 글쓴이가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알아야 할 내용을 추렸다. 3월은 탑골공원, 4월은 효창공원, 5월은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비롯해 6월 전쟁기념관, 11월 덕수궁과 12월 한국이민사박물관 등을 찾아 기억해야 할 역사를 소개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얽힌 사적지들을 통해 과거를 생생히 전한다.

〈보리·1만7000원〉

‘히로애락의 기록’ 옷 이야기와 패션 문화사

옷을 입다 패션을 만든다
정연이 지음



당신의 옷장이나 옷걸이를 살펴보면 줄무늬 셔츠나 재킷 하나 좁은 눈에 띄는 것이다. 줄무늬 티셔츠는 파블로 피카소 등 예술가들도 사랑했던 옷이다. 현대 패션에서 줄무늬는 대담함, 경쾌함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클래식 아이템이다.

줄무늬(스트라이프·stripe)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돼 왔다. 중세 유럽 시대에는 저주받은 악마의 무늬로 여겨졌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경멸의 뜻을 담아 죄수, 사생아, 농노 등 하층민들에게 줄무늬를 입도록 했다.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줄무늬는 ‘해방’의 이미지를 얻었다. 반대로 죄수복의 줄무늬는 ‘자유’의 발판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후 ‘바다’를 상징하는 기호로 확장됐고, 제임스 딘 등 스타들의 작장을 통해 ‘젊음’의 이미지를 얻는다.

옷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돼 왔다. 사회현상과 맞물리며 변화와 부침을 거듭해왔다. 옷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패션계 역시 마찬가지다.

홍익대 겸임교수로 패션 컨설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정연이의 책 ‘옷을 입다 패션을 만든다’ 패션 디자이너의 특별한 옷 이야기는 패션사의 숨겨진 이야기와 사람들,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옷에 대한 단상을 풀어놓은 책이다. 패션 본고장 파리에서 공부하고 발렌시아가 등 국내외 디자인실을 거치며 패션 실무를 익힌 저자는 인간과 옷, 패션과 문화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저자는 “옷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면서 히로애락의 감정을 더욱 뚜렷하게 기록한다”며 “옷을 입는 행위는 어떤 삶을 기록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태초에 옷이 있었다’, ‘옷 입은 사람들의 역사’, ‘패션에 대한 불변한 진실’, ‘어떻게 입을 것인가’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던 1851년 여성 인권 운동가 엘리자베스 스미스 밀러의 ‘옷차림’은 역사

에 기록된다. 여성이 최초로 ‘바지’를 입고 외출한 것이다. 자전거리는 혁명적 이동수단을 즐기고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여성들이 ‘블루머’라는 바지를 입기 시작한 이래로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여자의 바지는 거리에서 용인됐다.

전쟁이 단생시킨 밀리터리 패션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 버버리사가 제 1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 육군에 납품한 레인코트는 참호(trench)전에 적합했기에 트렌치코트라는 이름이 붙게됐다. 또 공군이 입었던 보머 재킷과 미국과 유럽의 해군이 착용했던 피코트 역시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저자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하려는 패션 산업의 이면도 들여다본다. 저개발 국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패스트 패션과 모피와 가죽을 얻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현장 등이다. 그밖에 힙스터 문화에 대한 단상, 명품의 역사와 속성, 백화점과 패션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내간다.

〈에코리브로·1만9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